

##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유형분석을 통한 공간적 적용 연구

이 상 규\*

충주대학교 도시공학과

(2012년 1월 6일 접수; 2012년 2월 27일 수정; 2012년 5월 8일 채택)

### Spatial Application of Public Design through Analysis of its Realm and Type

Sang-Kyu Lee \*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Chu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ju 380-702, Korea

(Manuscript received 6 January, 2012; revised 27 February, 2012; accepted 8 May, 2012)

#### Abstract

Recently, Public Design is being applied at many kinds of urban development. But the application is not carried out well owing to ambiguity of the object of plan. The object of the design and the role from it are based on defining of the realm and type of public design. So, it is necessary to study more about the realm and type of the public design in accordance with the context of the related space and reg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ublic design, some points of conclusion have been attained. First, the realm and type of public design is to be more simplified than ever: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medium. So, public facilities are to be oriented toward placeness on the one hand, and public medium is to be used for regional marketing on the other hand.

**Key Words** : Public design, Design type, Design realm, Design application

#### 1. 서 론

#####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공공사업 및 개발들이 도시의 기능, 양적인 문제에 치우친 점에 반해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문화적, 심미적인 접근을 통한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은 최근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제도가 통합적으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적용

에 있어 인식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운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신, 2007).

먼저, 공공디자인 적용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공디자인 개념과 범주, 그리고 유형에 관해 보다 통일적인 차원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는 계획대상을 지정함에 있어 지자체 등의 유관부서들의 디자인관련 업무영역과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꾀하고 있지만, 공공디자인의 적용에 있어, 사업의 범위나, 과정 등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 단순히 공공디자인의 실현을 도시내의 소규모 시설물(공공 가로장치물 또는 조각, 상징품 등)에 적용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디자인의 적용구조 차원에서, 운영주체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먼저, 개

\*Corresponding author : Sang-Kyu Lee,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Chu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ju 380-702, Korea  
Phone: +82-43-841-5419  
E-mail: thankyu@cjnu.ac.kr

범과 범주의 영역을 확실히 함으로써, 계획대상을 명확히 한다면, 그 계획대상을 운용하는 주체들의 역할과 절차에 있어 명확해 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범주 및 운영주체에 대한 대응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통해 지자체(광역/기초)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문헌을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의 정립 및 공공디자인의 범주 및 유형을 파악하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공공디자인의 운영체제 검토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정리하려 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유형을 통해 계획대상을 추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 수준의 공공디자인 유형을 분류하며, 적용 가능한 구조를 파악하고 유형별로 지역 및 공간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유형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2006)은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도시환경과 공공정보시스템과 같은 공통된 삶의 영역과 관계하므로 한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이룬다고 하고 있으며, 조(2008)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인 공공영역의 범주를 체제와 개인 사이, 혹은 공적·제도영역과 사적영역 중간에 위치한 사회적 영역이라고 하여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 조(2007) 공공의 시설과 공간에 대한 여러 부분의 계획과 디자인을 포함하며 대상에 따라서는 주변의 도시 맥락과 관련한 경관디자인까지 범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2007)은 공공기관이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새로운 선진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홍(2007)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예술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중에서 공공디자인의 지역적, 공간적 확장을 위해 지적인 연구는 강과 조의 연구이며, 다만, 그러한 적용의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여서, 아직

은 선행연구 차원에서 공간적 적용맥락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범주 및 유형분석을 통해 지역 및 공간적 적용의 단계까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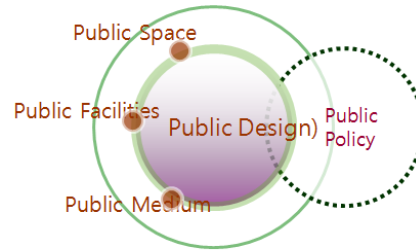


Fig. 1. definition of public design.

Source: Manual for public design,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lf governing, 2007

2. 공공디자인 범주 및 유형고찰

2.1. 공공디자인의 범주 및 유형

공공디자인의 대상을 정책적 영역에서 한정하여 본다면, 공공디자인은 공공영역의 기반 및 설치물의 디자인과 국가 및 공공을 표시, 상징하는 매체의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공간은 국가의 기반시설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공공시설물은 공공영역에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고, 또한 공공정보는 공공 목적의 소통을 위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용품은 공공의 목적에 활용되는 용품, 마지막으로 공공환경매체는 시각이외의 환경매체를 의미한다(Table 1 참조).

Table 1. Objects and realm of public design

Objects	Realm
Public space	public infrastructure in accordance with public policy
Public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public policy
Public goods	public goods in accordance with public policy
Public information	public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ublic policy
Environmental media	environmental factors

Source; Basic study for promotion law of public design, Ministry of culture and travel, 2006

**Table 2.** Objects and realm of public design from public design association

main class	middle class	small class
Public Space Design	urban environmetn	open space
	Public architecture & interior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space
		cultural space
		historic space
	education space	
Public Facility & Product Design	transportation facilities	pedestrian facilities
	convenient facilities	logistic facilities
		relax facilities
		hygency facilities
	providing facilities	retail facilities
		management facilities
information facilities		
Public Communication Design	information media	administration facilities
	symbolic media	guidance media
		advertisement media
	administration media	
	marketing media	
environmental media		

Source: Objects and realm of public design from public design association, 2006

**Table 3.** Criteria of indicators of public design in Seoul

classification	small class
Public Space	open space
	infrastructure
	cultural space
Public architecture	administration building
	cultural building
	transportation building
Public Facility	street facilities
	providing facilities
	urban structure facilities
	street green facilities
	light facilities
Public visual media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guidance light
	image information media
advertisement media	environmental media
	building advertisement media
	public facility advertisement media
night scenery	transportation advertisement media
	building night scenery
	urban structure night scenery
cultural night scenery	

Source: material of public design lecture, Seoul gow., 2006

공공디자인협회와 서울시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한 공공디자인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디자인협회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을 크게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3가지로 구분하였다(Table 2 참조). 또한 가장 많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의 경우는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의 영역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크게 6개 분야로 1)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공공시설물, 4) 공공시각매체, 5) 광고물, 6) 야간경관으로 구분하고 있다(Table 3 참조).

**2.2. 기존 범주 및 유형에 대한 비판공공디자인의 한계점**

기존 공공디자인의 범주설정과 유형분류는 세부적 적용을 위해 앞으로 확장, 심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지나친 개념위주의 논의에 치우쳐서, 계획대상의 추출과 운영주체의 역할분담, 지역 및 공간적 적용 관점에서는 범주 및 유형화의 단순화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공디자인이 또 하나의 계획이자, 사업이 되는 것 보다는 기존 계획과 사업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의 운용 방안이 지자체 별로 시급하다. 기존의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유형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회적·파편화된 과잉디자인으로 추진되는 점, 지역 특성 등의 연구 개발에 대한 통시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현상의 조화와 접목의 부재한 점(신, 2007) 등에 비추어, 특히, 공간적 특성, 공간의 정체성 등을 담아내는 항목이 공공디자인의 계획대상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공공디자인 공간적 적용 논의**

**3.1. 공간차원에서의 공공디자인의 영역설정**

공공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또는 각 분야에서의 연구들을 볼 때,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범주는 매우 다양하고 개념적으로도 세분화되고 있어 이를 보다 정책적이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적 적용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 설정을 통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해당 지역의 공공디자인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

인가?

- 공공디자인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먼저,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공공영역(public)과 민간영역(private)으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각각의 영역 속에 자체의 성격이 완화된 영역(semi-public, semi-private)으로 추가 분류할 수 있다(Fig.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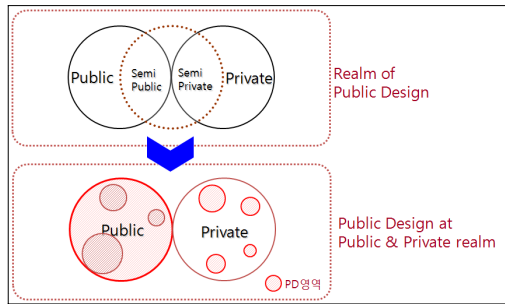


Fig. 2. Understanding of realm of public design.

이러한 공공영역(public)과 민간영역(private)의 대별 하에 완화된 영역(semi-public, semi-private)들은 부분적으로 상호 영역속에 산재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영역속의 개인적 공간, 민간영역속의 공공의 접근이 자유로운 영역 등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간영역은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등의 요소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공공영역과 공공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분들이 semi-public 영역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상호의 조화 속에 자리 매김 될 수 있다.

3.2. 유형설정과 공간적 적용

공공디자인의 유형구분은 먼저 주체, 객체로 구분되어 설정할 수 있는데, 공공디자인의 주체에 따라, 혹은 객체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설정이 가능하다. 주체의 구분에 따라서는 국가, 광역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법적 행위의 영향권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광역/기초) 수준에서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의 주체적인 분류에 따른 유형설정이 정책방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

로 판단하여 다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만을 한 기준요소로 설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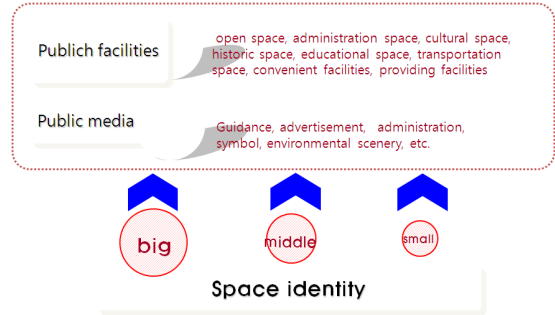


Fig. 3. Relation of the realms and identity of public design.

반면, 공공디자인의 객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기존의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즉, 각각의 행해지는 공공디자인의 영역들을 하나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객체에 근거한 영역설정은 곧 바로 공공디자인의 적용범주와 방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영역범주 설정(디자인협회, 2006)에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용품, 공공정보 디자인으로 크게 공공디자인의 객체를 분류하고 있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와 영역성을 살펴보면,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은 다소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 공공시설은 대체로 공공공간에 놓여 있고, 공공공간의 내용물들 또한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 논의의 공공시설로 분류된 항목들은 부수적이고 소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를 통합하여 “공공시설”로 보아도 개념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용품, 공공정보 디자인의 경우에도 공공의 소소한 용품 및 매체들의 집합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기존 논의의 공공용품, 공공정보 디자인을 통합하여 “공공매체”라는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의 공공디자인의 유형은 객체분류에 의한 “공공시설”과 “공공매체”로 유형분류를 할 수 있다.

### 3.2.1. 공공시설

이러한 영역에는 옥외공간, 행정공간, 문화/복지공간, 역사시설공간, 교통시설, 편의시설, 공급시설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은 다시 지역 및 도시의 개발과정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면적 차원의 개발, 선적 차원의 개발 그리고 점적 차원의 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공공시설들은 소규모의 시설일지라도 공간 속에서 정의되어 질 수 있는 공간의 부속이라는 이해에서 전체적으로 “장소 지향적”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Fig. 4 참조).



Fig. 4. Public facilities of urban develop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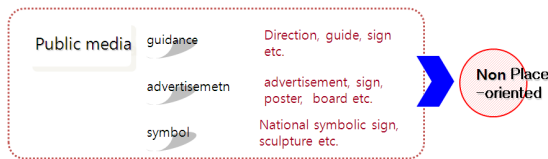


Fig. 5. Public design at public media.

### 3.2.2. 공공매체

공공매체에는 공공용품 및 지시유도 표지판(안내도, 이정표 등), 광고홍보물(광고판, 현수막 등) 그리고 상징(정부 로고 등)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공공매체는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장소에 국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비장소 지향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Fig. 5 참조).

### 3.3. 지자체수준의 공공디자인의 기본구조

지자체의 공공디자인은 결국 공간적 특성의 총합적인 구조에서 공간적 적용의 기본적인 구조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 수준에 맞는 상징화, 브랜드화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지자체들은 지역 및 공간을 현재의 경향성(trend)과 미래의 발전방향(goal)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성 및 정

체성(Identity)을 부여하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특성화된 목표(goal)와 다시 결부하여 새로운 ‘장소성’(placeness)의 창출이라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자체 수준의 공공디자인의 범주는 결국, 지역 및 공간의 정체성과 장소성의 근거한 사항들이 공공시설 및 공공매체에 투영되는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투영과정은 또한 광역적 차원과 국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상호 작용을 통한 영향의 결과와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공공디자인의 범주 및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존 공공디자인의 범주는 지나치게 중복적이고, 세분화되어 적용에 있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계획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운영주체에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공공디자인의 공간적 적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먼저, 공공디자인의 범주를 크게 공공시설 및 공공매체로 대별할 수 있고, 이러한 단순화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둘째, 공공디자인은 공간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점과 지역의 시간에 따라 장소성의 변화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 수준의 적용메카니즘을 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기법을 통하여 설명하는 논문들이 후속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자체 수준에서는 공공시설 및 매체들이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고, 시설의 중요도의 위계를 반영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과정을 견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 참고 문헌

- 강현주, 2007, 도시디자인, 도시의 미래, 황해문화, 55, 123-124.
- 김개천, 2007, 개인의 삶과 사회적 문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3, 56-58.
- 김세용, 2008, 공공공간, 그리고 공공디자인, 건축과 사

- 회, 13, 154-156.
- 문화관광부, 2006, 공공 디자인 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102-103.
- 신홍경, 2007, 21세기 실내공간과 공공디자인, 한국실내 디자인학회 학술논문집, 9(1), 98-99.
- 오창섭, 2007,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공공디자인, 디자인학연, 73호, 174.
- 이승환, 2007, 도시디자인 정책의 패러다임 연구, 디지털 디자인학연구, 7, 68-69.
- 장동련, 차승희, 2006, 통합디자인을 통한 도시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술연구, 86-88.
- 정강화, 2007, 도시공공디자인의 해외 성공사례, 도시문제, 42(467), 32-35.
- 정두용, 2007,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계획 및 사업, 도시문제, 42(467), 54-56.
- 조경진, 2007, 공공디자인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도시문제, 42(467), 25-26.
- 조명래, 2008, 공공디자인, 공공영역을 디자인하라!, 건축과 사회, 11, 52-54.
- 조성룡, 2008,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건축과 사회, 13, 150-152.
- 채민규, 2007, 우리나라 도시 공공디자인의 실태와 문제점, 도시문제, 42(467), 97-98.
- 행자부, 2007, 공공디자인 매뉴얼, 행자부.
- 홍석일, 2007, 도시 공공디자인의 의의 및 필요성, 도시문제, 42(467), 46-48.